



시론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한 해



최창섭 목사
(에benezer 선교교회)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미래에 대해 막연한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계획이 실천되고, 결과도 없는 계획으로만 남게 되어 이내 실망하고 만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무기력증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가져보거나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의 정치권이나 교단, 교회에서 “변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환골탈태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광경을 접하면서 도덕적 흠이 너무 많기에 스스로 사퇴하라 목소리를 높인다. 곧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청문회 광경까지 보게 될 것이다. 검증 받는 후보자들과 검증하는 자들 모두 숨겨진 베일들을 하나씩 벗긴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내적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와 삶의 질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교회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작은 이익의 추구가 반목과 질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으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정착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 전체가 한 순간에 다 바뀌어질 수 없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한 사람씩 변화되어가면 변화와 개혁은 누룩처럼 사회와 국가로 번져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의 외적인 것에서 그 무언가를 얻으려 기대하기보다는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신앙과 인격이 새로워질 때 외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처해진 상황이 사람들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 바뀌어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나중에 하게 되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이제 내면의 성찰과 배를 깎는 듯한 회개 없이 외적인 결과물의 추구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분주한 삶속에서도 잠시잠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독대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며,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게 되며,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사명자로 세우심을 체험하게 된다. 나아가 내적 변화를 통해 외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와 더불어 주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된다.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치유 받게 되어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즉 불신, 외로움, 배반, 미움과 증오, 연속적인 삶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삶의 행복감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한 성취도나 만족감도 없게 된다.

내면의 치유와 변화를 통해 외적 변화까지 수반되면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되며, 자신이 처한 가정, 교회, 직장, 사회와 국가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전도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이런 자들의 수가 늘어갈 때 교회와 민족에게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진보, 통합인가 양분인가

미 언론, 2기 집권 오바마 정부의 과제와 추진 방향 보도

국정 지지도 52%를 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정권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로버트 미 대법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귀빈과 의당 주변에 모여든 수십만 명의 축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사용한 성경과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용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통에 따라 예배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보기 위해 워싱턴 인근을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최대 80만 명의 인파가 모여, 취임식장 주변과 내셔널 몰은 새벽부터 축제 분위기를 이뤘다. 축하객들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며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환영했다.

그러나 4년 내내 정권을 짓눌렀던 경기침체에 주요 현안마다 공화당과 버락길 협상을 벌여야했던 '격전의 4년'을 마무리하고 재선 대통령으로서 2기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의 새로운 4년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수 있을까?



미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산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구 퓨리서치가 지난 17일 조사한 오바마의 국정 지지도는 현재 52% 수준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2차 대선 이후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 7명의 2기 출범 시점의

수를 택하고 있다.

지난 연말 부시감세안 연장처리 싸움에서도 협상에 응하라는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촉구를 뒤로 한 채 각계각층 국민들을 만나며 여론전을 펼쳤고 결국 공화당은 '중산층 파괴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올겨겨겨짜막'로 지난해

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문화전쟁 즉 동성결혼 논란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인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취임식 연설에서도 "우리는 세니 커폴스(1848년 여성권리 획득을 위

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이민자들이 환영받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안전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측근인사 대거기용, 정치협상 상관 없고 "갈 길 가겠다" 경제회복 등 현안 산적...동성애자 권리/인권엔 사활 걸어

지지율 중 6위다. 2009년 취임 직후 국민 70%가 "오바마가 일을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비율은 57%까지 떨어졌다.

낮은 지지율로 시작하는 2기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버트 슈블 노트르담대 미국학 교수는 "4년 전 거대한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야는 좁아졌다"며 "(국민들이) 한계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뉴스전문채널 CNN에서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첫 집권 시 미완으로 남겨둔 숙제가 많다. 당장 국가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하며 미분책으로 남겨 놓은 재정지출 자동 삭감도 처리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복지정책과 이민법, 총기규제 개혁 문제도 풀어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화당 협상 전략은 완전히 변했다. 주요 이슈에서 물러섬 없는 강공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을 압박하는 우회전

한 최초의 회의 개최지, 셀마(1965년 인권운동인 몽고메리행진 개최지), 스톤월(1969년 동성애 인권운동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자명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제 선구자들이 시작한 이런 일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 딸들이 노력에 맞는 평등한 소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동성애 형제·자매들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때까지,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

이와 같은 동성결혼 지지는 바로 민주당 즉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기반을 의식한 발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동성애 로비스트들이나 단체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코드가 맞는 측근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인선한 것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p>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가르왈리(GARHWALI)



4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와 세 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소유한 인도는 밀집한 연관이 있는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비축해 놓은 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 삶의 모습 가르왈리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며 정직한 농부들이다.

이들은 마을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마을에는 농지로 둘러싸인 곳에 집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모여 있다.

사람들은 비축해 놓은 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 삶의 모습 가르왈리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며 정직한 농부들이다.

코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다양한 색의 머리 스키프를 두른다. 첫 쌀밥 먹이기와 첫 이발과 같이 아이들에게 하는 많은 통과례가 있다.

신앙 사실상 가르왈리인들 모두 다 힌두교도들이지만 다른 힌두교 사회만큼 종교법을 준수하는데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가르왈리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들은 거의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가르왈리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들은 거의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절반 이상 "종교 자유 침해받고 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종교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에서 북한 경비병에 발각돼 총살당했다고 21일 전했다. 이 북한 남성은 돈벌이를 위해 수차례 중국을 드니다가 탈북자를 돕던 오픈도어스 직원을 우연히 만나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됐다.



"근무중 십자가 목걸이 착용 이유 해고는 부당"

근무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영국 여성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승소했다.



북한기독교인 성경공부하러 중국가다 총살당해

북한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러 중국으로 가던 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경비병에 발각돼 총살당했다고 21일 전했다.

해고됐다. 이 일로 영국 내에서 종교 자유에 관한 논란이 촉발됐다. 결국 BA는 2007년 직원들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 사규를 고치고 이웨이다를 복직시켰다.

해당 조사 결과 52%가 지난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인 58% "공격용 총기 판매금지 찬성"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오바마 정부가 총기규제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공격용 총기 및 대용량 탄창의 판매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살 초등생 배낭에 권총...학교 폐쇄 소송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17일 7살의 학생이 권총이 든 가방을 메고 등교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가 일시 폐쇄되는 소송이 일어났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영혼사랑 뜨거운 선교열정 안고 하나님 품으로 멕시코 단기사역 중 김옥란 선교사, 이정숙 권사 소천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 세계 선교회 파송 김옥란 선교사(고 김종일 목사 사모)와 뉴라이프선교회 이정숙 권사가 바하칼리포니아 멕시코 라파스 단기사역중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김 선교사의 장례는 남가주든든한교회 교회장으로 22일 오후 7시 임관예배, 23일 오전 10시 발인예배를 드린 후 로즈힐장으로 옮겨 4년 전 소천한 고 김종일 목사 곁에 안장됐다.

4년 전 고 김종일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자)가 소천한 후 교단 세계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은 김옥란 선교사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선교사로 우

뚝 섰다.

슬하에 4남매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떠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단기사역에 참석해오던 중 지난 14일 고 김옥란 선교사는 예전과 같이 "치과사역을 도와줄 좋은 도우미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부탁을 남기고 멕시코로 출발했다.

이번 사역지는 바하칼리포니아 맨 끝 지역인 Los Cabos 지역까지 다녀오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사고가 난 지역은 로스카보스에서 두 시간 정도 거리인 라파스였으며 선교팀은 두 대의 차량으로 나뉘



김옥란 선교사



이정숙 권사

이동하던 중 김 선교사와 이정숙 권사가 승차한 두 번째 차량이 변을 당했다.

고 김 선교사가 이번 단기사역을 떠나기 앞서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의 어려움이 없느냐고 묻자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지요"라는 답을 남겨 남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유족으로는 장녀 엘리자베스, 차녀 사라, 장남 아론, 차남 마르틴이 있다.

17일 새벽 소식을 접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김현인 목사 부부와 고 김 선교사의 장남, 장녀가 멕시코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사건 정황과 장례절차를 밝혔다.

한편 남가주든든한교회 당회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고 김 선교사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고인과 유족들을 위해 온 정성을 담아 교회와 성도들이 장례일정을 준비했다.

한편 고 이정숙 권사(뉴라이프교회)의 장례일정은 22일 오후 6시30분 뉴라이프교회(담임 박영배 목사)에서 천국송배를 드린 후 시신을 화장해 캄보디아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자 기자)

'커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드림교회, 커피전문 선교사 초청 세미나 성황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커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커피와 선교 세미나를 20일 오후 1시 본 교회 카페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동아시아지역에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커피전문가인 노 스테반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피를 통한 선교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노 스테반 선교사는 "커피의 역사는 1000년 정도 된다. 커피의 종류로는 고급커피로 아메리카지역에서 나는 아라비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동결시켜서 나오는 로브스타, 그리고 아이티에서 나오는 리베리카와 자메이카에서 나오는 블루마운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전문가 노 스테반 선교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커피와 선교 세미나가 드림교회에서 열렸다(사진은 세미나 포스터)

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러나 커피점은 허가가 잘나온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커피전문가인 바리스타교육을 받으면 선교지에서 커피전문점 비즈니스맨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일에는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는 대신 교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커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전하는 가장 좋은 틀이다. 커피한잔으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선교지에서는 교회역할을 담당하는 좋은 도구이다. 많은 분들이 비자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점 하나당 6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지에서 전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좋은 점을 잘 살려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의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노 선교사의 사역과 커피전문점 선교사역을 위해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말씀사경회에서 김기섭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LA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강사로 말씀사경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마11:2)라는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13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열었다.

특히 마지막 날 행사는 2013년을 시작하면서 열린 제7차 신년특별사경회(특새)와 말씀사경회를 마치면서 열린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경회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한 김기섭 목사는 마지막 날 "내일이 온 재할까 과연 나에게 내일이 올 수 있을까 가장 어렵고 깊은 절망의 터널 가운데 찬양 부르고 힘을 얻게 하

셨다. 인생의 기도제목 좋은 주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며 환란중의 큰 도우심이 되신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요동함속에서도 두려워함 없게 해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믿을 알지언다 라는 고백으로 힘 있게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특새 개근상 시상시간을 가졌으며 특새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비전케어에 모금액 3천불 전달 사랑의빛 나눔 음악회 성료

화랑라이온스 클럽(회장 사라박)과 화랑레오클럽(회장 에드워드김)이 공동주관하고 화랑청소년재단(회장 마로조)과 남가주음악협회(회장 강영옥)가 공동주최한 '사랑의 빛 나눔 음악회'가 20일 오후 6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화랑청소년재단 학생들이 모금운동을 해 정성껏 모은 3천 달러를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지부장 서영석)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음악회는 와이즈 싱어즈(지휘 김재숙), 랜디킴 밴드, LA남성선교회 합창단, 그라지오스 트리오, 이화코랄 등과 소프라노 장혜지, 테너 이규영, 피아니스트 임태연, 트롬본 연주자 권오태 등이 나서 수준 높은 곡을 선보여 음악회를 빛냈다.

이날 음악회는 이화코랄과 LA남성선교회합창단의 연합합창과 싱어롱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기독교전도회 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 제 33대 회장 및 제 31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26일(토) 오후 5시 남가주사람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사랑제플에서 열린다.

▲문의: (714)824-1210 정희수 총무

풀러신학대학원 한인총동문회 2013년 신년모임
풀러신학대학원 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에서 주최하고 풀러한인 M.Div.동문회에서 주관하는 풀러(Fuller) 한인총동문회 2013년 신년모임이 27일(주) 오후 6시 포감사신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1440 N. Spring St. Los Angeles)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20달러(부부동반 30달러, 2012년 졸업자 및 2013년 졸업예정자는 무료)이며 베이비시터가 준비돼 있다. dan9park@hotmail.com(박진구 회장).

▲문의: (909)238-2211 고승희부회장

남가주연합기도회
남가주연합기도회가 26일(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남가주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현세대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교회와 교회의 벽을 허물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의 회복은 물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취지로 열리게 된다.

▲문의: (714)323-1194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27일(주) 오후 1시 창조과학세미나를 비전센터 105호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이재만 선교사, 최우성 박사.

▲문의: (213)749-4500

미주성결교 남서부지방회
제34회 미주성결교 남서부 지방회가 2월 3일(주) 오후 5시 30분에 샌디에고 로고스교회(담임 김건오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58)356-7177

아이엠처치 예배장소 이전
아이엠처치(담임 정종원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년예배부터 새 예배처소로 장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 주소는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이다.

▲문의: (323)733-9101

얼바인침례교회 김동길 박사 강연
얼바인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사)는 김동길 박사 강연을 27일(주)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949)857-9425



사랑의빛 나눔음악회에서 와이즈싱어즈가 찬양하고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대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워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특고.선교

내가 본 고 김옥란 선교사님

-선교현장에 함께 있었던 멕시코 이중식 선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고 김옥란 선교사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 할 수 없이 슬프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김 선교사님의 영혼은 주님 품에서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계시길 믿습니다. 저는 2012년 여름 단기선교팀으로 오신 김 선교사님을 뵈었습니다. 희어진 머리에 웃음을 머금고 농장에서 일하는 인디오 형제들의 치아를 실 새 없이 진료하며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김 선교사님은 육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영혼을 치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단기선교를 다니며 헌신하는 고 김옥란선교사님

선교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틈틈이 강의 통역과 상담도 맡아주셨습니다. 진료하는 시간에는 늘 찬양을 들으며 기쁨으로 의료사역을 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분이 되는 겸손한분이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의료선교를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셨습니다. 한번은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2학년 학생 하스민의 집을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처진 낡고 작은 트레일러 안에서 추위에 5식구가 사는 것을 보시고 올라가셨는데 이번 사역에 오실 때 전막 3개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스민집이 추위 보이기 지붕과 벽을 쳐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김 선교사님은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온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셨고 학교 기숙사에 있는 옷걸이와 휴지통에 이르기까지 김 선교사님의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장거리 선교에도 아무 말도 없이 "주님의 일인데 모두가 헌신 해야지요"라며 동행 하셨습니다. 지난 16일-17일 이스카야노 피로데사역에

에 태풍으로 먼지와 바람이 너무 심해 사역이 지연되자 하루를 머물며 사역을 하시고 하셔서 잇몸치료환자 45명을 다 치료하시고는 통통 부은 발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며 침을 맞고 또 환자를 치료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를 빼지 않을래요. 평생회 회 텐데 치료해서 살려야지"라며 꼼꼼히 치료하시는 선교사님을 향해 "선교사님 사람들이 많이 밀렸어요!"하고 재촉을 하면 그저 웃음만 지으며 "기다리세요"라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죽임의 부르심을 받던 마지막 사역 날, 그날도 하루 종일 점심도 거르고 치료사역을 하신 후 늦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 선교단 일행이 라파스로 향할 때는 이미 거리엔 어둠에 내려앉았습니다. 깜깜한 산기슭 사이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빛만이 산자락 오르막길을 환히 비추는 광경을 보시고는 "천국 가는 길처럼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시며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영광 밝음이 어땠는지 비추니 예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를 부르셨습니다. 그 찬양을 마친 후 잠이 드셨고 하나님 품에 고요히 안기셨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당신의 선교의 발자국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선교사님!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이틀마다 선교사님의 뜨거운 선교열정을 이어 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선교사님 저 천국에서 만납니다!

선교지에서 온 시

백두산 들꽃

이 윤 식(연변희망복지촌)

해발 2744미터
북풍한설 모진 추위
그 동토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
짧디나 짧은 이 날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었습니다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서로가 헤어지면 죽을 새라
얼기설기 부동켜안고 살아온 생명들

오늘은 장하게도
그 아름다운 자태와 넋을 온 세상에 뽐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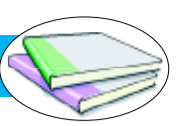
요 몇 년 사이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우리들 모습은 더욱 기(氣)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찾아온 손님- 환경오염
우리들 모습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억겁을 살아온 생명들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습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외롭지만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책 소개



"2012 해외기독교문학" 제 5호

초대작가와 회원작품의
모든 장르작품 수록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회장 이철수 목사)의 5번째 문집 "2012 해외기독교문학" 제 5호가 지난해 말 출간됐다.

초대작가로 광삼희, 김명옥, 이가림, 추영희, 허금행의 시와 국인남, 오인동의 수필을 게재했다. 회원탐방기사로 문성록 목사를 강남미 전도사가, 장산 이상철을 이계선 목사가 만났으며, "내가 만난 하나님" 주제로 2명, "은퇴의 즐거움" 주제로 김영백 외 4명, 편집실에서 회고하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그 시절 동우회"를 실었다.

그리고 시, 수필, 대경간증수필, 소설 등 모든 장르의 회원작품들을 실었다. 시는 24명, 수필 13명, 간증수필 4명, 소설 3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마지막에는 특별부록으로 "벤자민 플랭클린의 생애와 사상"(장석렬), "민족문학으로서의 통일문학의 과제"(김경락)를 게재했다. 이외에 편집후기와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 회원명단을 삽입했다.

동우회는 1995년 뉴욕에서 시작됐으며 근교 지역으로 회원가입을 확대했으며 두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모임 때마다 회원작품지를 만드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오다 최근에는 정기모임은 1년에 1회, 각 지역별로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작품집은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their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동장로교회, 등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한인교회,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세계비전교회, 세계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오펜시온교회, 워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사



김성길 목사
• 시온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항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포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만영 목사
• 천구들교회



김순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주경 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11-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개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선금을 등록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